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채권전략 안예하 yhahn@kiwoom.com



1월 금통위 Review: 인하 기대 축소 과정

Check Point

- 한국은행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 성장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
-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음. 당사는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1~2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음. 다만 한국은행은 통화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인하 기대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결정을 내림.
- 당사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으나, 하반기 말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비 IT 부문의 성장 위축이 드러나는 구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의견은 유지. K자형 성장 속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에 대한 우려와 환율에 따른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인상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고 3년물 기준 기준금리 대비 50bp 수준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으나, 인상에 대한 우려 속 오버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국고 3년물은 상반기 중 2.85~3.20% 범위 예상.

한국은행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금통위보다 성장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환율 상방 우려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하 소수의견을 늘 제시하던 신성환 위원 또한 이번에도 금리 동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위원은 5명으로 기존 3명에서 늘어났으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를 전후로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하는 과정을 밟아왔던 만큼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1월 금통위 당시에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고 표현하면서 인하 가능성이 점차 악화되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문구를 아예 삭제하면서 예상보다는 더 매파적인 금통위였다.

당사는 프리뷰 자료를 통해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1~2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았으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인하 기대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시장도 그에 반응하며 국고채 금리가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국고 3년물은 3% 선을 크게 상회했다.

당사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주식시장 강세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으나, 연내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다. 하반기 말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비 IT 부문의 성장 위축이 드러나는 구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의견을 유지한다. 한국은행 또한 이번 금통위를 통해 환율 레벨과 관련해 한미 금리차 등이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11월 이후 금리 상승 압력 속에서도 환율이 함께 절하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환율이 물가 상방 리스크를 자극한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비 IT 부문의 성장 및 수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인상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 K자형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상 전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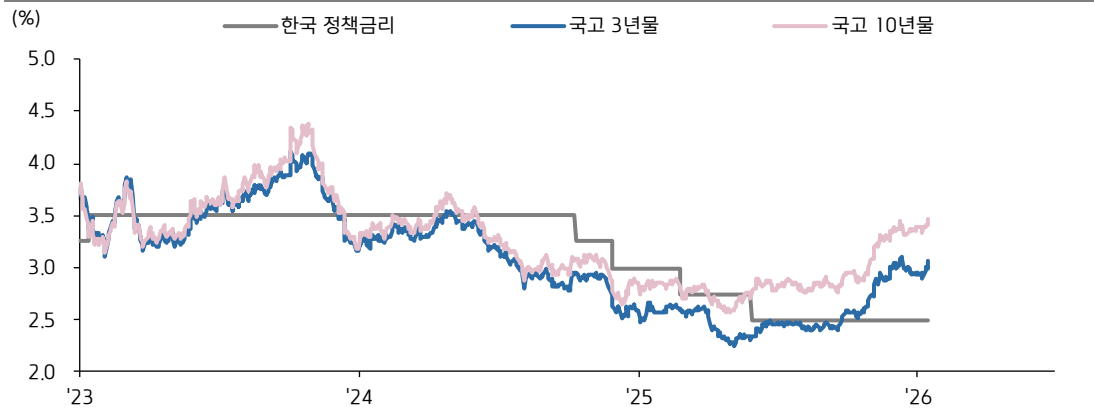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는 구간에서 수출 호조가 지속된다면 국고채 금리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하며 밴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그 구간에서 수시로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밴드 형성 구간에서 상방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인상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점에 따른 저가 매수와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있다. 15일 금통위 직후 국고 3년물은 3.10%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다. 과거 금리 동결 시작 구간과 일부 인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와 국고 3년물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45bp 가량 벌어져 있었음을 고려할 때 50bp 가 넘어가는 레벨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이 금리 방향성 자체를 결정할 요인은 아니나 추가 상방을 제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하방 압력 또한 제한적이다. 달러/원 환율이 환헷지 등에 따라 추가 상승이 제약될 수 있겠으나, 내국인의 해외투자 흐름에 크게 변화가 없다면 환율 방향성 또한 쉽게 바뀌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국가 경제 환경에서 수출 경기 호조와 환율 상방 우려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금리 또한 하단을 형성하며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가격 상방 기대 또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점도 금리 하락을 제약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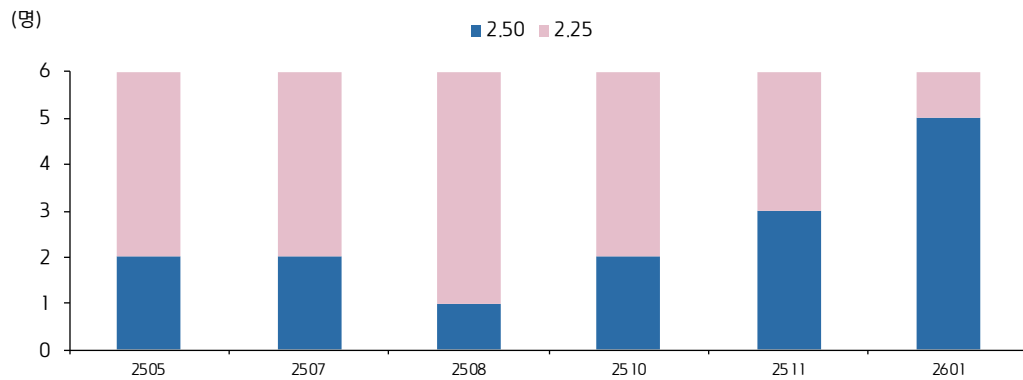
한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오버슈팅한다면 국고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70bp 수준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과거 2017년 구간에서도 국고 3년물과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50bp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다 추가 인상 우려를 반영하면서 70bp 부근까지 확대된 후 인상 기대가 확실시되며 90bp 까지도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물가 상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정부부채 증대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70bp 수준이 오버슈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단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국고 3년물은 상반기 중 2.85~3.2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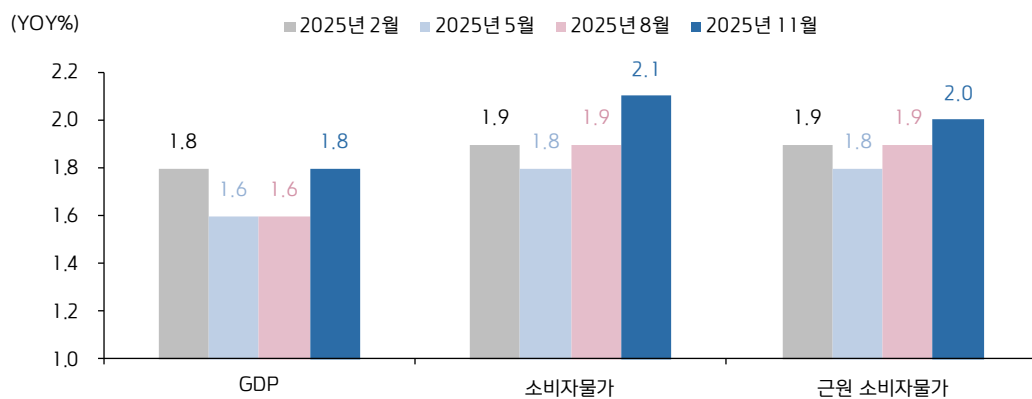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금통위원 3개월 내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2026년 경제 전망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통화정책방향론 비교

	2025년 11월 통화정책방향	2026년 1월 통화정책방향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마중 무역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제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AI 부문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제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의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각각 지난 8월 전망치(각각 0.9%, 1.6%)를 상회하는 1.0% 및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 흐름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 및 2.2%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중 전월과 같은 수준(2.6%)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2.0%)를 상회하는 2.1%,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각각 1.9%)를 상회하는 2.1% 및 2.0%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2월 중 2.3%로 소폭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 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다시 1,400 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규모 축소, 기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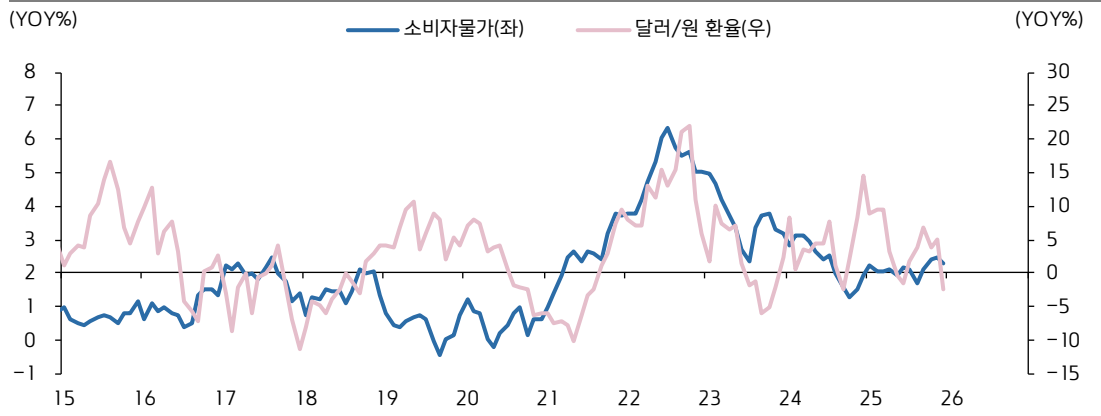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을 전망이 상향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u>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u>,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u>국내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u>
------	--	---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리

질문	응답
3개월 내 금리 전망 의견	5명 3개월 뒤 2.50% 금리 유지 가능성, 1명 2.50%보다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함. 동결 5명. 3개월 시계열 내 현재 경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인하 1명 아직 내수 부문 회복세가 약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다만 금융안정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통방문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삭제는 통화정책 재점검을 의미하는지?	3개월 내에는 대다수 위원들이 동결 기조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그 뒤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단언하기 어려움. 성장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고, 미국 통화정책 방향, 환율 방향 등 불확실성이 높음. 지금 방향성을 보기는 어려움
금리 인하 기대와 한국경제 비관론이 환율 방어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경제 비관론이 환율 방어에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면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펀더멘털과 이자율이 지금 모든 환율의 요인은 아님. 현재 수급 요인을 보면 채권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고, AI 등이 좋기에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많기 때문에 주식, AI 주식 관련 등이 환율 수급을 결정하고 있음.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기조 요인은 맞지만, 작년 연초와 현재 성장률 전망 비교하면 상향 조정되어 왔고, 펀더멘털이 중요하지만 방향은 개선되었음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펀더멘털 기조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수급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 한국 경제 비관론이라고 하셨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비관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움. 좋은 면도 많음. AI가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미국, 중국, 한국 등이 그 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 계엄 이후 성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바 있지만 비관과 폭망 등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는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함
성장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1.8% 성장 전망 상향 가능성도 있는지?	1.8% 성장률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IT 중심의 성장을 반영한 것인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1년 정도의 시계열에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함.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협상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은 등장했지만, 1.8% 성장에는 15% 관세를 예상하고 예측한 부분임. 협상 과정을 봐야할 것 같고, AI만 보면 상향 리스크가 있지만 지정학적 요인은 하방 요인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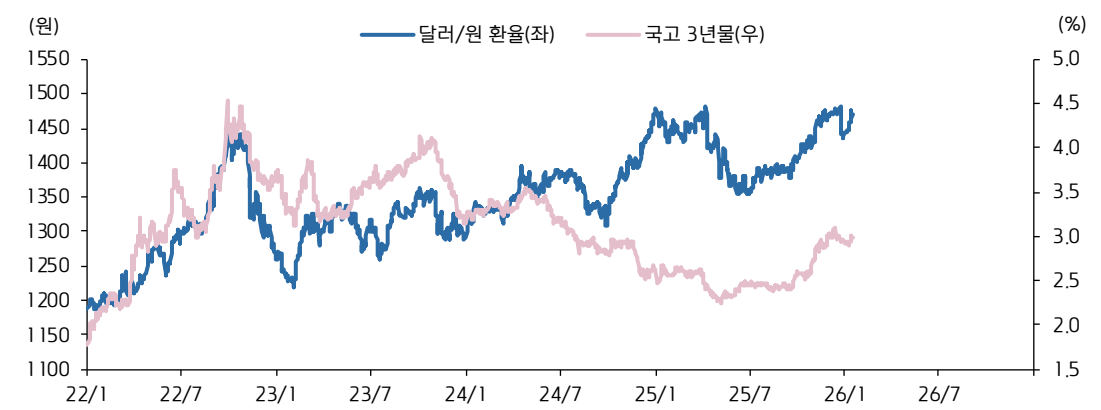
외환시장 대책과 관련해 단기 수급 대책이고, 경기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면 우리나라로의 자금 유입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의견은 부인하기 어려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국내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임. 잠재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 상승, 주담대 금리 상승,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금리가 작년 10,11 월보다 올랐음. 작년 10, 11 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했음. 그에 따른 환율 상승도 있었음. 작년 11 월 금통위 2 주 전 correction 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환에 대한 얘기를 했음. 인상은 아니지만 인하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음. 한쪽으로는 의견 쏠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원하는 수준의 메세지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함. 이러한 금리 변화로만 부동산이 잡힐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돈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여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은 총재 취임 이후 3 년동안 가장 많이 신경쓴 것은 가계부채 축소에 대한 의견을 표한 바 있음. 그 결과 M2 증가율이나 수준은 이전에 비해 늘지 않았고 늘어나는 추세를 둔화시켰음. 늘지 않았음. M2/GDP 비교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과의 유동성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음. 그 나라의 금융 구조 등을 봐야하는데 그 지표만을 두고 유동성을 많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환율 가능해서 한미 금리차 역전 장기화가 그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한 의견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음.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면 금리 인상해야할 것이겠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환율 절하된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만으로 환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음. 금리를 올렸을 때의 성장, 주식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6 개월 전만해도 금리 안 내려서서 실기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고,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함
총재님이 가장 우려하는 양극화의 모습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떤 정책 조합이 가능할지	우리나라는 하청구조가 발달되어 있음. 잘나가는 수출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서플라이 체인은 차이가 있음. 이문제는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수 없고,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한국은행의 금중대는 이자율을 올리면 더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있고 더 적은 영향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 영향들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임. 비대칭적인 통화정책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함

달러/원 환율과 한국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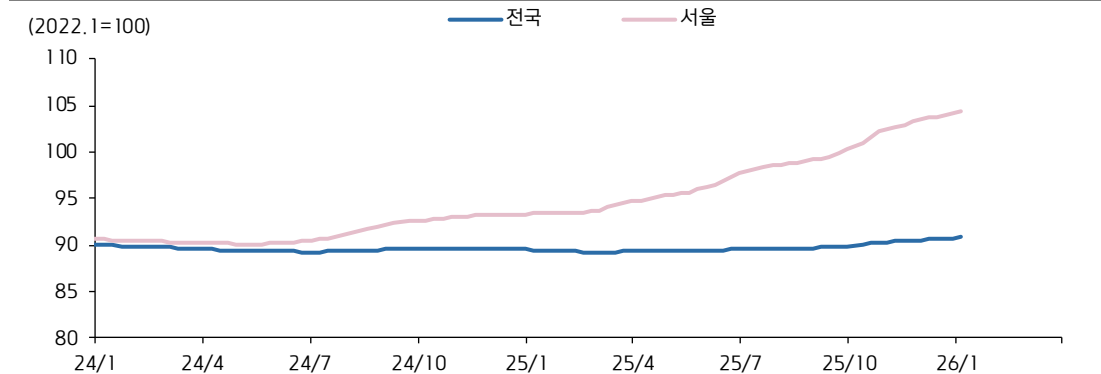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원 환율과 국고 3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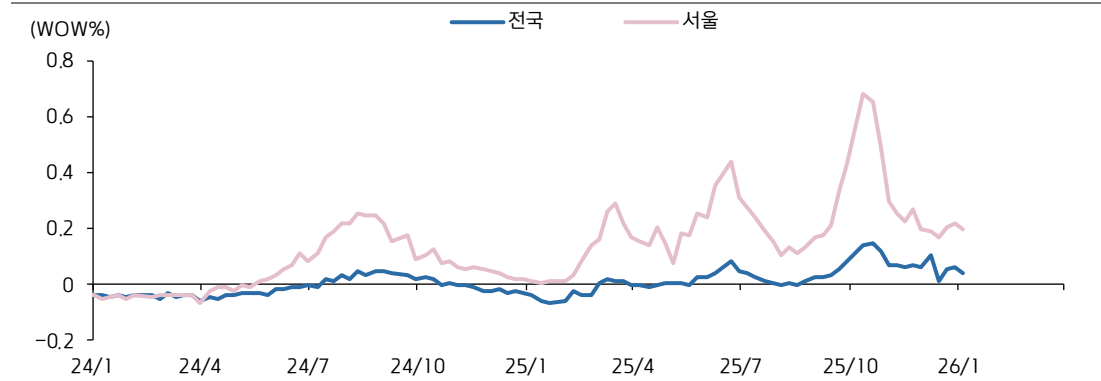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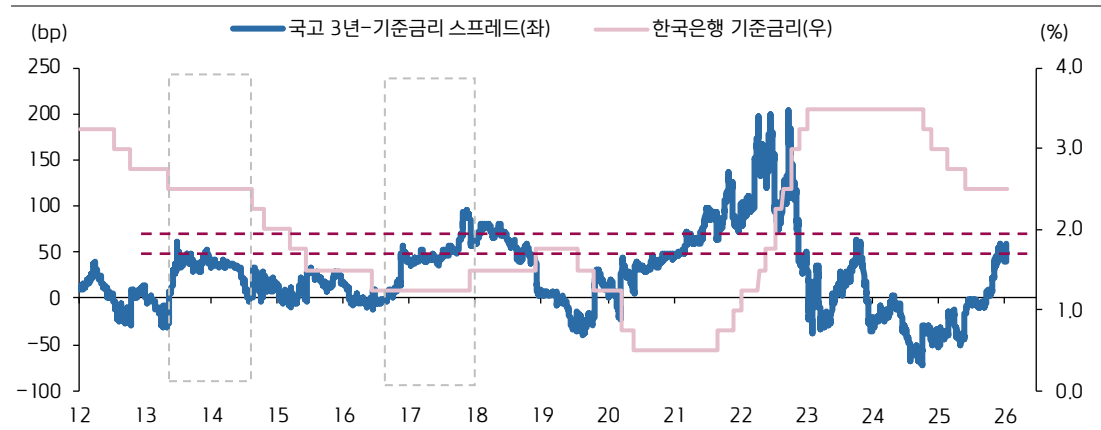
자료: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전주비 추이



자료: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12년 이후 국고 3년물과 기준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